

이안 라이즐리 RI회장 방한 기념, 경인 5개 지구 합동주회 개최 10월 27일 롯데호텔, 우리 지구 80명 등 400여명 참석



이안 라이즐리 RI회장내외 방한을 기념하는 경인 5개 지구(3600, 3640, 3650, 3690, 3750) 합동주회가 3600지구 주관으로 지난 10월 27일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됐다.

이 날 합동주회에는 이안 라이즐리 RI회장내외와 이동건 전RI회장 내외, 다나카 사쿠지 전RI회장, 기타 세이지 RI이사, 오자와 가즈히코 전RI이사, 문은수 RI이사, 윤영석 로타리재단 이사, 채희병, 윤상구 전RI이사, 민병국 전 로타리재단 이사, 이순동 총재를 비롯하여 경인 지역 5개 지구 총재 및 로타리안, 가족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 지구에서는 이순동 총재를 비롯한 총재단과 지구임원, 클럽 회장, 총무 등 80명이 참석하여 이안 라이즐리 회장내외를 환영했다.

이안 라이즐리 RI회장은 “이제 한국로타리의 위상은 RI회장이 되어야만 방문 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로타리의 중심”이라고 강조하며, “한국 로타리안 모두가 로타리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면, 로타리 변화를 만들고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 한국로타리(Zone 9, 10A) 연수회 10월 25일~27일, 롯데호텔 서울서 개최

2017 한국로타리(Zone 9, 10A) 연수회가 이안 라이즐리 국제로타리 회장과 이안 라이즐리 RI 회장내외와 이동건 전RI회장 내외, 다나카 사쿠지 전RI회장, 기타 세이지 RI이사, 오자와 가즈히코 전RI이사, 문은수 RI이사, 윤영석 로타리재단 이사, 채희병, 윤상구 전RI이사 등을 비롯, 한국로타리 19개 지구 현, 전, 차기, 차차기 총재단과 배우자 등 한국 로타리 지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문은수 RI이사의 소집과 RI3600지구(위원장 김준택 3600지구 전 총재)의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번 연수회에서 이안 라이즐리 RI회장과 한국로타리 지도자들은 인도주의 봉사 확대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굶주린 사람이 없는 지구촌을 건설하고 21세기 국제 사회에 맞는 7만명 시대의 한국로타리 회원들의 봉사 방향을 모색했다.



▲ 우리 지구 윤현초 리틀렉트클럽 김민재 군과 이기윤 양이 이안 라이즐리 RI회장내외께 축하꽃다발을 전달.



▲ 2017 한국로타리 연수회에 특별강연 연사로 초청된 반기문 전UN사무총장(가운데)과 이안 라이즐리 RI회장(좌), 이동건 전RI회장(우)



우리 지구에서는 이동건 전RI회장과 이순동 총재를 비롯, 채희병, 윤상구 전RI이사, 민병국 전 로타리재단이사, 구자두, 장충식, 전순표, 박영규, 문덕환, 고성대, 이종원, 이영호, 박호균 전총재, 장세호 차기총재, 박수부 차차기총재 등 역대 가장 많은 총재단이 대거 등록 및 참석했다.

이순동 총재는 10월 22일, 인천공항에서 이안 라이즐리 RI회장 내외의 방한 환영행사와 19개 지구 총재단이 함께 주최한 RI회장 환영 조찬회 등 연수회 모든 행사에 참가했으며, 운영석 로타리재단 이사와 문덕환, 고성대 전총재는 연수회 기간 동안 각각 다나가 사쿠지 전RI회장과 기다 세이지 RI이사, 오자와 가즈히코 전RI이사 등의 에이드를 맡아 봉사했다.

또 이번 연수회 개막식이 개최된 10월 25일 행사에서는 우리 지구 운현초등학교 리틀랙트클럽 김민재 군과 이기운 양이, 이안 라이즐리 RI회장 내외의 환영 꽃다발을 전해주는 행사에 참가하기도 했다.

